

## 어머니의 자녀 감독지식과 근원에 관한 연구

### Variables Associated with Maternal Monitoring of Child's Whereabouts and Daily Activities

천 회 영\*

Chun, Hui Young

김 미 해\*\*

Kim, Mee Hae

옥 경 희\*\*\*

Ok, Kyung Hee

### Abstract

This study of variables associated with maternal monitoring of child's whereabouts and daily activities was conducted with 1500 children (8 and 13 years of age) and their mothers. They responded to questionnaires on monitoring knowledge, sources of maternal information (maternal solicitation and/or child disclosure), and demographic variables. Data were analyzed by Pearson's *r*, ANOVA, and regression analysis.

Mothers' knowledge of her child's activities and whereabouts and the sources of her knowledge were associated with mothers' higher level of education. Child's age was related to mother's knowledge and maternal solicitation. Maternal solicitation and child's age were highly predictive of mothers' knowledge of her child's whereabouts and activities. Results of this study may have applications for parental supervision and child rearing attitudes.

**Key Words** : 감독지식(monitored knowledge), 어머니 감독(maternal monitoring), 양육태도(child rearing attitudes)

\* 접수 2002년 2월 28일, 채택 2002년 4월 12일

\* 고신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E-mail : chunhy@kosin.ac.kr

\*\* 구미1대학 유아교육과 부교수

\*\*\*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 I. 서론

감독한다(monitor)는 동사의 사전적 의미는 '통제의 수단으로 계속 지켜보거나 점검한다'는 것이다(Read et al., 1995, p.182, Kerr & Stattin, 2000 재인용). 이에 Dishion과 McMahon(1998, p.61)은 부모의 감독을 '자녀의 활동과 적응, 그들이 가는 곳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추적하는 일련의 부모 행동'으로 정의함으로써, 부모가 자녀의 행동과 모임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행동적 정의를 내렸다. 그러나 부모의 감독 측정을 위해 가장 흔히 사용된 방법은 자녀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지식을 묻는 것이어서 감독의 원래 정의라고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추적과 점검에 대해서는 거의 조사되지 않았었다(Kerr & Stattin, 2000; Stattin & Kerr, 2000). 즉 청소년들에게 부모의 감독을 평정하도록 할 때, "00의 친구가 누구인지, 밤에 어디에 가는지, 돈은 어디에 쓰는지, 시간이 나면 무엇을 하는지를 부모님이 실제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Fletcher, Darling, & Steinberg, 1995, p.262), "00가 집 밖에 있을 때 어디에 있는지를 부모님은 알고 있습니까?", "00가 집 밖에 있을 때 누구와 함께 있는지 부모님은 알고 있습니까?"(Weintraub & Gold, 1991, p.272) 등의 질문이 사용되었다.

최근 Kerr과 Stattin은 기존의 방법으로써는 부모가 무엇을 하는지 보다는 단지 무엇을 아는가만을 알 수 있으므로 부모의 행동을 측정할 수 없다고 보고, 부모감독은 부모(감독)지식으로 재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Kerr & Stattin, 2000; Stattin & Kerr, 2000). Crouter, Helms-Erickson, Updegraff와 McHale(1999)도 부모감독의 목적 중 하나가 자녀의 일상활동, 가는 곳, 동료들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이므로

부모감독이라는 용어보다는 '부모의 지식'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이에 비해 부모감독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Kilgore, Snyder, 그리고 Lentz(2000)는 부모 자신의 행동평가, 교사관찰에 의한 부모의 인식 또는 관심 평가를 통해 감독을 측정하였으므로 감독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적절했다고 볼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부모감독의 정의에 관한 논의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모감독이 부모의 자녀감독 지식과 구분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며, 부모감독을 자녀가 왕래하는 장소가 어디며, 무슨 활동을 누구와 하는지 등의 자녀 일상생활에 대해 부모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정의 내렸다<sup>1)</sup>.

자녀의 활동에 관한 지식을 얻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의식적으로 감독하는 것 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Crouter와 그의 동료들(1999)은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 또는 함께 활동하는 방법, 교사나 친구의 부모와 같은 가족 외 지인으로부터 자녀 경험에 관해 알게 되는 방법, 그리고 자녀 스스로 부모에게 자신의 일상생활을 알려주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부모감독 지식의 근원을 세 가지로 정의한 Kerr과 Stattin(2000)에 의하면 자녀의 가는 곳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적하려는 부모의 노력에서 비롯된 '부모의 질문'과 '부모의 통제'를 먼저 들 수 있다. 전자는 자녀에게 직접 묻거나 친구 또는 친구의 부모와 얘기함으로써 자녀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인 반면 후자는 자녀의 활동과 모임에 관한 규칙과 제한을 부여함으로써 자녀가 마음대로 할 수 있

1) 이하 본문에서 부모의 지식은 부모감독 또는 감독지식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는 자유의 정도를 통제하는 것이다. 세 번째 지식의 근원은 자녀가 자발적으로 기꺼이 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하는 '아동의 보고'이다. 아동의 보고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범죄율을 낮추거나(Cernkovich & Giordano, 1987), 높은 학교성취도(Otto & Atkinson, 1997), 약물이나 알코올의 낮은 사용도(Cohen & Rice, 1995)와 관계되므로 감시나 통제보다도 더 유익하다는 연구결과들을 통해 그 중요성이 이미 시사되었다(Kerr & Stattin, 2000). 이에 Stattin과 Kerr (2000)는 부모의 지식 획득이 감독이라는 용어 자체가 암시하듯 적극적인 부모의 노력에 의한 것인지를 알기 위해 스웨덴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14세 아동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세 가지 지식의 근원이 부모지식에 대해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세 지식근원과 부모지식은 모두 유의하게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부모지식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언변인은 아동의 보고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Kerr과 Stattin (2000)은 대도시 아동을 대상으로도 같은 결과를 얻고, 부모의 감독지식을 지식의 근원 중 하나인 부모 질문에만 의존하여 측정하거나 부모지식을 개념화하는데서 나아가 부모감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결과는 유럽의 청소년기 아동을 대상으로 보고되었으므로, 과연 우리나라의 아동 중기와 청소년기 초기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했을 때에도 일관된 결과가 나올 것인지는 의문시되었다.

부모의 감독지식 및 근원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감독이 자녀의 학업과 행동문제에 관련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반사회적 행동의 발달에 관한 이론적 모델들에서 그 중요성은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다(Crouter et al., 1999; Kerr & Stattin, 2000; Stattin & Kerr, 2000). 첫

째, 부적절한 부모의 감독을 포함하는 양육실체는 파괴적 행동의 출발 원인이면서 자녀를 일탈적인 동료집단에 참여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반사회적 행동을 하게 하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다(Fridrich & Flannery, 1995; Snyder & Patterson, 1987). 둘째, 잘 감독되지 않은 청소년은 반사회적, 범죄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으며(Patterson & Stouthamar-Loeber, 1984), 학령전기에서 초기 학령기까지의 행동문제 연속성은 이후 발달에서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행동문제를 일으킬 확률을 높인다는 것이 종단연구를 통해 밝혀졌었다(Snyder, Compton, & Cramer, 1999, Kilgore et al., 2000 재인용). 셋째, 흡연과 약물복용, 학업성취의 저하, 위험한 성적 행동 역시 부모의 감독 소홀과 관련된다고 보고되었다(Barber, 1996; Fletcher et al., 1995 등). 반면, 자녀의 약물이나 알코올 복용을 막기 위한 적절한 책략으로서의 부모감독은 자녀가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또래집단과 어울리는 것을 제지하고, 그들로부터 자녀를 보호한다고 Fletcher와 그의 동료들(1995), Weintraub과 Gold(1991) 등은 밝힌 바 있었다.

물론 가정 외에도 학교와 이웃 같은 더 큰 환경변인들이 부모의 감독지식과 근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Crouter et al., 1999; Kilgore et al., 2000).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미시적인 환경인 가정환경의 일부로서, 부모감독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주로 다루어졌던 어머니 관련 변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일반 가정에서 어머니는 대표적인 양육자로서 그 역할 중요성이 크므로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양육에의 영향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감독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Crouter, MacDermid, McHale, & Perry-Jenkins, 1990). 이에 구체적으로 어머

니의 취업여부, 학력, 그리고 양육태도 변인을 중심으로 부모 감독지식 및 근원간의 관계에 관해 살펴보고자 했다. 이어서 아동의 연령과 성을 '아동변인'으로 하여 부모감독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1980년대 중반까지 여성의 취업이 극적으로 증가하면서 취업모 가족에 관한 연구들은 취업모의 자녀 모두가 학령기의 발달 위기를 겪는 것은 아니지만, 취업모의 남아가 여아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Crouter et al., 1990). Bronfenbrenner와 Crouter (1983)를 비롯한 여러 연구자들은 미국의 양육 패턴이 자녀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적절한 부모의 감독이 취업모 가족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남아가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Crouter와 그의 동료들(1990)은 맞벌이 가정에서 잘 감독되지 못한 남아는 같은 수준으로 감독을 경험한 여아에 비해 학업과 행동에서 더 많은 문제를 나타낸다는 결과를 통해 어머니의 취업지위(전업 대 시간제 취업)가 자녀의 행동 문제에 영향미치지 자녀의 성, 감독과 상호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어머니의 감독지식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

어머니의 학력을 부모의 감독과 관련지어 다룬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자녀의 일상 경험에 관한 부모의 지식에 영향 미치는 조건을 가족간 차이와 가족내 차이로 구분하여 살펴왔던 Crouter와 그의 동료들(1999)은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의 어머니는 가족내 패턴에 따라 지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즉 남아여아로 구성된 형제쌍에서는 둘째아인 여아에 대해, 남아남아로 구성된 형제쌍에서는 첫째 남아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

었고 특히 후자의 형제쌍에서 어린 남아에 대한 어머니의 지식 수준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아울러 청소년 초기 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친회영, 옥경희와 김미혜(2001)의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에게 감독지식을 제공하는 근원의 하나인 아동의 보고 정도는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와 행동통제 같은 양육태도와 함께 교육수준에 의해 대부분 예언될 수 있었고,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보고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질문정도 역시 어머니의 학력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의 학력이 단일 독립변인으로 보다는 다른 변인과 통합되어 연구되었던 예로 Kilgore 등(2000)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들은 편부모 지위, 어머니의 고졸미만의 학력, 비취업, 첫 아이 출산시 19세 미만의 나이 등을 포함하는 '가족의 불리한 점' 변인이 남아와 여아 모두에서 부모감독과 유의한 관계가 없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그들의 연구는 어머니 학력 단독 변인의 역할을 볼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가 자녀 양육에서의 바람직한 실제에 관한 지식이 더 높아서 교육수준이 낮은 부모에 비해 자녀에게 더 주의할 것이라는 가정(Crouter et al., 1999)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감독지식간의 관계 그리고 교육수준과 어머니의 감독지식 근원간의 관계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중기아동기와 청소년기동안에 행동문제의 출현과 지속에 기여하는 위험요인들 중에서 미시적인 수준의 맥락변인으로는 부모의 부적절한 훈육 또는 양육의 실체를 들 수 있다(Dishion, French, & Patterson, 1995). 부모의 거친 훈육은 적어도 남자 아동에 있어 학령전기동안의 행동 문제(Shaw et al., 1994), 학령기 초기에 행동문

제가 지속되거나 새로 출현하는 것(Campbell et al., 1991 등)을 일관되게 예측해 준다고 알려져 있다(Kilgore et al., 2000 재인용). 남아와 여아 모두에 있어 4세 때의 강압적 훈육이 6세 때의 행동문제를 독립적으로, 신뢰롭게 예언하는 변인이라고 Kilgore와 그의 동료들(2000)은 보고하기도 했다. 또 부모의 통제는 자녀의 자유로운 행동을 통제함으로써 자녀는 부모에 의해 통제된다고 지각하여 반발감을 가지며, 그 결과 부모에 대해 정서적으로 덜 애정적이며 덜 개방적으로 된다고 한다(Amoroso & Ware, 1986, Kerr & Stattin, 2000 재인용). 한편 Kerr와 Stattin(2000)은 부모의 자녀 통제 노력과 자녀의 긍정적인 적응간의 상관관은 자녀가 통제된다는 느낌을 통계적으로 고정시켰을 때 나타난다고 했다. 따라서 지나친 감독은 오히려 그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부모의 감독이 자녀의 행동문제와 상관있다는 것과 양육의 실제 역시 행동문제와 관계 있는 요인이라고 밝혀진 선행연구들에 근거해 볼 때, 부모의 감독지식이 양육실제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론하는데는 무리가 없었다. 나아가 부모의 감독에 관한 일부 선행연구들이 부모의 양육방식 조사 문항들을 포함하는 척도로 감독을 측정·연구했으므로 감독의 의미가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Kerr & Stattin, 2000), 초기의 행동문제와 거친 부모훈육과의 연관은 아동의 연령, 성, 그리고 인종이나 민족에 따라 다르다는 점에서(예를 들어, Deater-Deckard, Dodge, Bates, & Pettit, 1996) 우리나라 부모의 감독지식과 양육의 실제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었다.

한편 아동관련 변인 중 아동의 연령과 부모의 감독지식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Crouter 등(1999)의 연구 외에는 발견할 수 없었다. 그

들에 의하면 평균연령이 8세인 둘째 아이의 연령과 부모의 감독지식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평균연령이 11세인 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첫째 아이 집단의 연령 변인이 크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가능성과 함께 11세와 8세 전후의 어린 시기간의 발달수준 차에 의한 결과일 가능성으로 설명되었다. 사실 연령이 낮을수록 생물학적 성숙도뿐 아니라 사회심리적 성숙도가 낮아 환경적 특성에의 반응과 조절이 어렵다고 할 때(옥경희·김미혜·천희영, 2001), 부모 역시 더 나이든 자녀에 비해 높은 수준의 감독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부모의 감독에 관한 연구에서 아동의 연령변인에 비해 성변인은 상대적으로 자주 다루어졌다. 적절한 부모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여아보다 남아의 독립성 훈련에 문제가 있으며(Hoffman, 1980), 학교성적·학업수행과 행동에서 부정적 결과가 나타난다(Crouter et al., 1990)고 보고되었다. 또 Kerr와 Stattin(2000)은 감독지식의 근원이 되는 어머니의 질문, 자녀의 보고 모두 여아가 남아에 비해 높았다고 보고했으나, Stattin과 Kerr(2000)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응답한 자녀의 보고 정도에서만 여아가 남아보다 높다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 학령기 전후의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Kilgore 등(2000)은 부모감독에 따른 학교 행동문제에서 성차가 없다는 결과를 보고하며 표집의 한계를 고려하여 잠정적으로 결과를 수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감독지식의 근원과 아동의 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있던 천희영 등(2001)의 연구에서도 성 변인과의 유의한 상관관계 또는 성 변인에 의한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고,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했던 남현미와 옥선화(2001)의 연구에서도 부

모감독 정도에 성차가 없다고 보고된 바 있었다. 그렇다면 아동중기와 청소년 초기로 연령차를 크게 했을 때, 아동의 연령과 성에 따라 부모의 감독지식과 감독지식의 근원은 차이를 보일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자녀 감독지식과 감독지식의 근원간의 관계를 먼저 알아보고자 했다. 나아가 감독지식과 감독지식의 근원이 어머니변인, 아동변인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며 어머니의 감독지식에 대한 어머니변인, 아동변인, 감독지식의 근원 변인의 상대적 영향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어머니의 감독지식과 감독지식 근원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2. 어머니의 감독지식, 감독지식 근원과 어머니변인 즉 취업여부, 학력 및 양육태도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3. 어머니의 감독지식과 감독지식 근원은 아동변인 즉 연령 및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4. 어머니의 감독지식에 대한 어머니변인과 아동변인, 그리고 감독지식 근원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 아동은 2개 광역시와 1개 중도시별로, 초등학교 2개교의 2학년 3개 학급, 남중학교와 여중학교 1학년 각 1개 학급에서 선정된 만 8세(M=100.9개월, SD=7.2개월)와 13세(M=160.6개월, SD=7.5개월) 아동 1500명이었다. 연구대상 아동의 연령별·성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대상 아동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학력에 따른 분포를 살펴본 바, 무응답자를 제외한 취업모는 602명(52.6%)으로 취업모가 비취업모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은 중졸이하가 14.2%, 고졸이 64.8%, 대졸 이상이 20.9%로 분포되어 있었다. 가족의 수입은 100만원 미만 15.0%, 200만원 미만 49.4%, 300만원 미만 21.8%, 400만원 미만 8.7%, 400만원 이상 5.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 아동의 연령별·성별 분포(%)

| 연령  | 성별        |           | 전체          |
|-----|-----------|-----------|-------------|
|     | 남         | 여         |             |
| 8세  | 343(49.9) | 344(50.1) | 687(100.0)  |
| 13세 | 390(48.0) | 423(52.0) | 813(100.0)  |
| 전체  | 733(48.9) | 767(51.1) | 1500(100.0) |

### 2. 연구도구

어머니의 감독지식은 Crouter와 그의 동료들(1990)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기초로 한 학업관련 지식 3문항, 개인생활 지식 7문항 등 2개의 하위차원에 총 10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반응자는 어머니였고, 예를 들어 “나는 아이에게 숙제가 있는지 없는지 안다”라는 질문에 대해 ‘항상 그렇다’(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까지의 5점 척도에 반응토록 하였다. 하위차원별 신뢰도계수  $\alpha$

는 학업관련 지식의 경우 .73, 개인생활 지식의 경우 .86이었다.

감독지식 근원의 측정 역시 어머니 질문과 아동보고의 두 차원으로 구성된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Kerr과 Stattin(2000)이 사용했던 질문과 동일한 것이었다. 그들의 연구에서 감독지식의 근원으로 포함되었던 부모통제는 양육행동의 한 차원으로 개념화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감독지식의 근원에서 제외하였다. 어머니 질문의 차원은 어머니가 자녀의 생활에 관해 얼마나 자주 질문하는지를 묻는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는 .84였다. 반면 아동의 보고는 아동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자주 자신의 생활에 관해 얘기하는지를 묻는 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는 .70으로 나타났다. 반응의 양식은 감독지식 측정 질문에 대한 반응양식과 같은 5점의 척도에 평정하는 것이었다.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지각을 통해 정서적 지지와 행동적 통제 차원으로 나뉘어 측정되었다. 전자는 이선경과 이재연(1998)의 연구에서 사용된 정서적 지지를 측정하는 문항 8개( $\alpha=.85$ ), 후자는 Steinberg, Elmen과 Mounts(1989)의 연구에서 행동적 통제의 조사를 위해 사용된 질문들에 기초한 문항 8개( $\alpha=.74$ )로 각각 구성되었다. '항상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의 5점 척도에 반응하도록 되어 있었다.

### 3. 연구절차

예비조사는 초등학교 2학년인 만 8세 아동이 질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지, 그리고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을 알기 위해 지역별로 초등학교 2학년 10명씩 총 3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초등학생들은 질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였으나 응답을 빠뜨리는 문항들이 있었고 응답 소요시간은 최대 30분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에서는 2학년의 경우 교사의 도움을 받아 학급별로 연구대상 아동들을 특별활동실로 모아서 5명 정도의 모둠으로 앉히고 모둠별 연구보조자가 도움을 주어 모든 문항에 빠뜨리지 않고 응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학생은 개별적으로 아동용 질문지에 응답하여 교사가 회수하도록 했다. 어머니용 질문지는 아동 편으로 집에 보낸 후 교사가 회수하도록 부탁하였다.

### 4. 자료의 처리 및 분석

먼저 지식의 내용 총점을 표준점수로 환산하고, 어머니의 자녀 감독지식이 지식의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대응표본 t 검증(paired t-test)을 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22, p=.83$ ). 이에 이후 분석에서는 지식의 내용별 표준점수의 합을 산출하여 감독지식 점수로 간주하였다.

어머니의 감독지식과 감독지식의 근원간 관계, 그리고 감독지식과 지식 근원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구하였다.

어머니의 감독지식, 감독지식 근원이 어머니의 취업여부, 학력, 그리고 아동의 연령, 성에 영향을 받는지 알기 위해 변량분석을 하고 필요한 경우 사후검증을 하였다.

끝으로 어머니의 감독지식에 대한 어머니변인, 아동변인 및 감독지식 근원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Ⅲ. 결과 및 해석

어머니의 자녀 감독지식과 두 가지의 감독지식 근원간의 관계를 살펴본 바 어머니의 질문과는 .57, 아동의 보고와는 .26의 상관계수가 산출되었으며 두 계수 모두 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어머니의 질문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보고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자녀 감독지식이 높다고 볼 수 있었다. 상관의 정도는 어머니의 감독지식과 질문 점수간에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감독지식과 감독지식 근원이 어머니의 취업여부, 학력, 양육태도와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를 알기 위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학력에 따른 감독지식 및 감독지식 근원 점수의 차이를 일원변량분석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서 보듯이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감독지식과 어머니의 질문 점수는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즉 두 종속변인 모두 취업모에 비해 비취업모인 경우 점수가 높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아동의 보고 정도는 어머니의 취

업여부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비해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세 종속변인 측정치 모두가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으로 Scheffé 검증을 한 결과 세 종속변인에서 중졸이하의 학력 집단과 고졸 및 그 이상의 학력집단간의 유의한 차이에 의해 학력 변인의 유의성이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경우보다 고졸 이상인 경우 자녀에 대한 감독지식 수준, 어머니의 질문 정도, 자녀의 보고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었다.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감독지식 그리고 감독

<표 3>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감독지식, 감독지식 근원 점수간의 상관계수

| 양 육 태 도 | 감독지식   | 감독지식 근원 |        |
|---------|--------|---------|--------|
|         |        | 어머니 질문  | 아동 보고  |
| 정서적 지지  | .27*** | .20***  | .50*** |
| 행동적 통제  | .30*** | .19***  | .43*** |

\*\*\*p<.001

<표 2>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학력에 따른 감독지식 및 감독지식 근원 점수의 일원변량분석 결과

| 독립변인 | 감독지식 |                   | 감독지식 근원 |          |                    |       |          |                    |      |         |
|------|------|-------------------|---------|----------|--------------------|-------|----------|--------------------|------|---------|
|      |      |                   | 어머니 질문  |          |                    | 아동 보고 |          |                    |      |         |
|      |      |                   | M       | SD       | F                  | M     | SD       | F                  |      |         |
| 취업여부 | 취업   | -.15              | 1.88    | 17.81*** | 18.92              | 3.73  | 7.72**   | 9.91               | 3.06 | .57     |
|      | 비취업  | .30               | 1.62    |          | 19.53              | 3.61  |          | 9.80               | 3.30 |         |
| 학 력  | 중졸이하 | -.84 <sup>a</sup> | 1.86    | 28.66*** | 17.97 <sup>a</sup> | 4.16  | 11.92*** | 9.12 <sup>a</sup>  | 2.93 | 7.98*** |
|      | 고 졸  | .19 <sup>b</sup>  | 1.75    |          | 19.43 <sup>b</sup> | 3.56  |          | 10.11 <sup>b</sup> | 3.18 |         |
|      | 대졸이하 | .44 <sup>b</sup>  | 1.45    |          | 19.56 <sup>b</sup> | 3.56  |          | 11.27 <sup>b</sup> | 3.24 |         |

a, b는 Scheffé 검증에 근거하여 집단을 구분 표시한 것임.

\*\*p<.01, \*\*\*p<.001



지식 근원 점수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상관계수는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와 행동적 통제에 두 하위차원은 감독지식, 감독지식의 두가지 근원 점수 모두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표 3>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 태도 중 정서적 지지도가 높을수록 자녀 감독 지식, 자녀에게 질문하는 정도, 자녀가 어머니에게 보고하는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었다. 행동적 통제정도 역시 같은 양상의 관계를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아동의 연령과 성이 어머니의 감독지식 및 감독지식 근원 점수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알기 위해 먼저 연령과 성에 따른 각 종속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결과는 <표 4>와 같았다. 이와 같은 평균과 표준편차에 근거한 이원변량분석 결과를 종속변인별로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4> 아동의 연령과 성에 따른 감독지식, 감독지식 근원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 연령  | 성 | 감독지식 |      | 감독지식 근원 |      |       |      |
|-----|---|------|------|---------|------|-------|------|
|     |   |      |      | 어머니질문   |      | 아동보고  |      |
|     |   | M    | SD   | M       | SD   | M     | SD   |
| 8세  | 남 | .78  | 1.45 | 20.18   | 3.43 | 10.78 | 3.46 |
|     | 여 | .82  | 1.44 | 19.79   | 3.48 | 11.52 | 3.14 |
| 13세 | 남 | -.66 | 1.81 | 18.35   | 3.82 | 8.81  | 2.61 |
|     | 여 | -.78 | 1.87 | 18.28   | 4.02 | 8.76  | 2.69 |

<표 5>의 변량분석 결과를 보면, 어머니의 감독지식과 어머니의 질문점수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표 4>를 참고해 볼 때 8세 아동의 어머니 감독지식 평균 .80은 13세 아동 어머니의 감독지식 평균 -.72보다, 8세 아동 어머니의

질문점수 평균 19.99는 13세 아동 어머니의 질문점수 평균 18.32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따라서 자녀의 성과는 관계없이 자녀의 나이가 13세인 경우보다 8세로 어릴 때 어머니의 자녀 감독지식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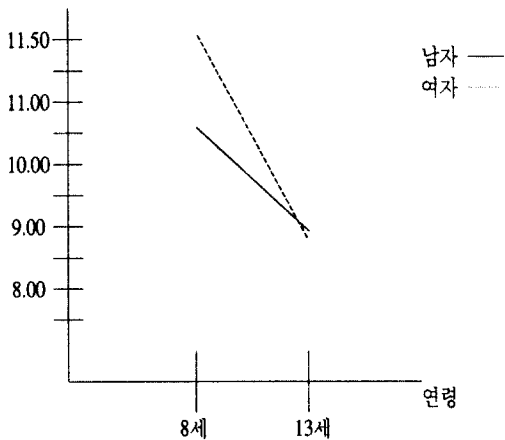
이에 비해 아동의 보고 점수에서는 두 독립변인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 모두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효과 측면에서 볼 때 아동의 보고 점수는 아동의 나이가 13세(M=8.79)보다는 8세(M=11.15)일 때, 남아(M=9.80)보다는 여아(M=10.14)일 때 높아 자신의 생활을 어머니에게 더 많이 얘기한다고 볼 수 있었다. 나아가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를 그림으로 제시한 <그림 1>에서 보듯이 여아의 보고점수는 8세에서, 남아의 보고점수는 13세에서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5> 아동의 연령과 성에 따른 감독지식, 감독지식 근원 점수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 종속변인    | 변량원    | 총 자유도 | 평균 자유도   | F         |
|---------|--------|-------|----------|-----------|
| 감독지식    | 주효과    | 연령    | 722.97   | 260.88**  |
|         |        | 성     | .64      | .23       |
|         | 상호작용효과 | 연령×성  | 2.00     | .72       |
|         |        | 오차    | 3441.96  | 1242      |
|         |        | 전체    | 4167.57  | 1245      |
| 감독지식 근원 | 주효과    | 연령    | 912.06   | 66.12***  |
|         |        | 성     | 17.68    | 1.28      |
|         | 상호작용효과 | 연령×성  | 8.15     | .59       |
|         |        | 오차    | 18193.73 | 1319      |
|         |        | 전체    | 19131.62 | 1322      |
| 아동 보고   | 주효과    | 연령    | 2001.18  | 231.26*** |
|         |        | 성     | 42.57    | 4.92*     |
|         | 상호작용효과 | 연령×성  | 54.74    | 6.33**    |
|         |        | 오차    | 12428.54 | 1437      |
|         |        | 전체    | 12518.42 | 1440      |

\*p<.05, \*\*p<.01, \*\*\*p<.001

한편, 어머니의 감독지식에 대한 어머니변인과 아동변인, 그리고 감독지식 근원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우선 모든 독립변인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회귀분석하였다. 그 결과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독립변인만을 중심으로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표 6>과 같다.



<그림 1> 아동보고 점수에 대한 아동의 연령과 성의 상호작용 효과

<표 6> 어머니 변인, 아동변인, 감독지식 근원 변인의 어머니의 감독지식에 대한 영향력의 회귀분석 결과<sup>a</sup>

| 독립변인        | B        | $\beta$ | R <sup>2</sup> | R <sup>2</sup> 변화량 |
|-------------|----------|---------|----------------|--------------------|
| 어머니 질문      | .23      | .50***  | .36            | .36                |
| 아동의 연령      | -.56     | -.35*** | .49            | .13                |
|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 | 2.38E-02 | .10***  | .50            | .01                |
| 어머니의 취업여부   | -.15     | -.05*   | .51            | .00 <sup>b</sup>   |

a. 회귀모형의 유의성 검증 결과 : F=220.98, p<.001  
 b. 정서적 지지의 R<sup>2</sup>= .503, 취업여부의 R<sup>2</sup>= .505로 .002의 R<sup>2</sup>증가가 있었음.

\*p<.05, \*\*\*p<.001

<표 6>에서 어머니의 감독지식은 4개 독립

변인에 의해 총 51%의 변량이 설명됨을 알 수 있다. 그 중 어머니의 질문 변인에 의한 설명 변량은 최대로 높았고 다음은 아동의 연령,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 취업여부의 순서로 설명 변량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어머니의 질문이 많을수록, 정서적 지지도가 높을수록 감독지식 수준은 높아지지만,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비취업 모보다는 취업모일수록 감독지식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의 감독지식에 대한 독립변인 각각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데서 나아가 감독지식 근원, 어머니변인, 아동변인의 독립변인군별 영향력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모형별로 단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즉 감독지식 근원, 어머니변인, 아동변인 각각에 해당하는 하위 변인만을 독립변인으로 분석한 모형을 단일 독립변인군 모형(모형1~모형3), 단일 독립변인군 두 개씩을 조합한 복합 독립변인군 모형(모형4~모형6)으로 나누어 각각 단계적 회귀분석함으로써 어머니의 감독지식 수준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군을 발견하고자 했다. 그 결과는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단일 독립변인군 즉 감독지식 근원, 어머니변인, 아동변인 각각의 하위변인들만으로 회귀분석한 결과, 모형별로 투입된 독립변인은 아동의 성변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하게 감독지식의 예언에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총예언변량은 모형2와 모형3에 비해 감독지식 근원 변인들로만 구성된 모형1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복합 독립변인군에 의한 모형에서 어머니변인은 모형4의 정서적 지지 변인, 모형6의 행동통제 변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한 예언변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연령

〈표 7〉 어머니의 감독지식에 대한 독립변인군별 상대적 영향력의 회귀분석 결과

| 독립변인                    | 단일 독립변인군       |                |                | 복합 독립변인군       |                |                |
|-------------------------|----------------|----------------|----------------|----------------|----------------|----------------|
|                         | 모형1<br>$\beta$ | 모형2<br>$\beta$ | 모형3<br>$\beta$ | 모형4<br>$\beta$ | 모형5<br>$\beta$ | 모형6<br>$\beta$ |
| 감독지식 어머니 질문<br>근원 아동 보고 | .56***         |                |                | .53***         | .52***         |                |
| 어머니 변인 취업 여부            | .20***         |                |                | .16***         | .08***         |                |
| 학 력                     |                | -.08**         |                | -.06*          |                | -.10***        |
| 정서적 지지                  |                | .09***         |                | .10***         |                | .08**          |
| 행 동 통 계                 |                | .17***         |                | .01            |                | .15***         |
| 아동 변인 연령                |                | .16***         |                | .11**          |                | .03            |
| 성                       |                |                | -.44***        |                | -.32***        | -.41***        |
| $R^2$                   | .39            | .13            | .19            | .42            | .48            | .27            |
| 회귀모형의 적합도(F)            | 380.20***      | 31.75***       | 148.00***      | 104.26***      | 267.71***      | 55.32***       |

\*p<.05, \*\*p<.01, \*\*\*p<.001

변인은 모형5와 모형6에서 유의한 독립변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모형4와 모형5의 총예언변량은 .42와 .48로 단일 독립변인군에 의한 모형 1, 2, 3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R^2$ 을 기준으로 설명변량이 높은 순서로 나열했을 때 어머니 감독지식에의 설명력은 감독지식 근원과 아동변인군, 감독지식 근원과 어머니변인군의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의 적응된 발달을 위한 부모의 자녀감독 역할의 중요성을 근거로, 어머니의 자녀 감독지식과 감독지식 근원간의 관계, 그것들과 어머니변인 및 아동변인간의 관계 그리고 감독지식에 대한 어머니변인, 아동변인, 감독지식 근원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밝히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머니의 자녀 감독지식과 감독지식 근원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질문과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보고가 많을수록 어머니의 자녀 감독지식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같은 결과는 아동과 어머니 모두를 대상으로 조사한 Stattin과 Kerr(2000)의 연구에서 보고된 바 즉 응답자에 관계없이 부모의 감독지식과 두 감독지식 근원간에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다는 결과와 일관된 것이었다. 또 청소년 초기의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했던 천희영 등(2001)의 연구에서도 일관된 결과가 보고된 바 있었다. 어머니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어머니는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일상생활에 대해 질문하며, 자녀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생활에 대해 보고함으로써 어머니가 감독지식을 많이 얻게 됨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었다.

감독지식과 감독지식의 근원이 어머니의 취업 여부 및 학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한 결과, 두 독립변인 모두가 감독지식과 감독지식의 근원 각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취업 또는 비취업모에 비해 자녀 감독지식 정도가 낮고, 자녀에게 질문하는 정도도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사회적 역할에서 파생되는 일과 시간적 요구가 큰 만큼 어머니의 취업은 자녀와의 활동시간을 제약하므로(Bohen & Viveros-Long, 1981, 옥경희 등, 2001 재인용), 어머니는 자녀의 생활전반에 대한 지식이 적고 질문을 하는 빈도도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 또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감독지식 수준이 높고 감독지식의 근원이 되는 어머니 자신의 질문 정도와 자녀의 보고 정도 모두가 높다는 결과는 Crouter 등(1999), Kilgore 등(2000), 천희영 등(2001)의 연구에서 이미 보고된 바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의 학력이 높으면 최선의 양육실체에 관한 지식을 더 많이 가질 것이므로 자녀에게 더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Crouter 등(1999)의 가정에 동의하는 결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그리고 아동의 보고정도는 어머니의 취업여부 자체보다는 다른 어머니 변인에 의해 영향 받는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결과로 볼 수 있었다.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감독지식, 감독지식 근원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두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행동통제는 자녀의 학업 및 동료관계 등 모든 생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자녀의 행동을 심리적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정서적 지지와 함께 권위적 양육태도의 특성을 이

루는 것으로 개념화되었다. 따라서 최적의 아동 행동발달과 관계된 온정적이고 적절한 통제를 포함하는 양육태도라 볼 수 있는 지지적·통제적인 양육태도(이선경·이재연, 1998)를 보이는 어머니는 자녀에게 관심과 적절한 반응을 보임으로써 감독지식과 질문의 정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어머니의 질문과 아동의 보고정도는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 정도와 밀접히 관계된다고 할 때(Stattin & Kerr, 2000), 지지적·통제적인 양육태도의 어머니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역기능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아동의 연령과 성에 따른 어머니의 감독지식과 감독지식 근원의 차이와 관련하여, 감독지식과 '어머니의 질문' 근원에서는 연령변인의 주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어머니의 자녀 감독지식과 자녀 생활에 대한 질문의 정도는 자녀의 나이가 13세 보다 8세로 어릴 때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결과는 연령에 따른 성숙도의 차이(옥경희 등, 2001) 그리고 자녀가 학령전기에서 청소년기로 발달함에 따라 덜 보호적으로 되며, 점차 독립된 행동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부모역할 수행이 변화한다고 했던 Belsky, Lerner와 Spanier(1984)의 주장과 관련하여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머니의 감독지식이나 자녀에의 질문정도는 자녀의 성에 따라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중기와 청소년 초기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감독지식과 질문에 의한 감독지식 획득은 자녀의 성보다는 연령에 의해 영향 받고 있음을 시사해 주었다.

대조적으로 아동의 보고에 의한 감독지식에 대해서는 아동의 연령뿐 아니라 성 변인의 효과 그리고 연령과 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세 보다는 8세로 어릴 때,

남아보다는 여아일 때 어머니에게 자신의 생활에 대해 보고하는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었다.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의존성이 높아 자발적으로 정보를 스스로 제공하는 아동의 보고 정도가 높기 때문으로 해석되었다. 여아가 남아에 비해 보고 정도가 높다는 것은 Kerr과 Stattin(2000), Stattin과 Kerr(2000)에 의해 이미 확인된 바 있었다. 그러나 연령과 성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에 근거할 때 어린 연령에서는 여아의 보고 정도가 높지만 청소년 초기에는 남아의 보고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14세를 대상으로 한 Stattin과 Kerr(2000)의 연구나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남현미와 옥선화(2001)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어머니에게 자신의 생활에 대해 보고하는 정도가 자녀의 의사소통을 하려는 의지와 의사소통의 개방성에서의 성차와 관계된다는 점(Stattin & Kerr, 2000)을 고려하여, 자녀의 보고 정도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관련 변인을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또한 남현미·옥선화(2001)의 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 차이는 연구대상 연령의 차이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본 연구의 아동보고 점수에서 남아와 여아 간 평균의 차이가 매우 적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추후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어머니의 감독지식에 대한 어머니변인, 아동변인, 그리고 감독지식 근원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감독지식은 어머니의 질문정도, 자녀의 연령, 그리고 어머니 변인에 해당하는 정서적 지지와 취업여부에 의해 영향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어머니 관련 변인 중 정서적 지지와 취업여부 변인의 영향력은 미미했지만 어머니의 질문 정도는 총설명

변량 51% 중 36%를 설명하는 중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추적 또는 감시를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으나 Stattin과 Kerr(2000)의 연구에서의 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이었다.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아동의 자발적인 정보 공유 즉 아동의 보고 보다 부모의 적극적인 추적 노력은 덜 중요하며, 부모는 자녀의 활동에 관한 정보 대부분을 자녀의 의지적 보고로부터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대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Stattin과 Kerr(2000)의 연구는 서구 문화권에 속한 스웨덴에서 행해져 부모-자녀간의 관계 특성이 우리 문화권과는 달라서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아동의 적응된 발달을 위한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는 부모의 지식 요구(질문)와 아동 행동의 통제, 그리고 부모를 자기 생활의 일부로 여기고자 하는 아동의 의지 모두를 포함하는 양방적 관심을 요구한다. 그래서 효율적인 부모감독은 부모의 관심과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자녀가 자신의 경험이나 활동을 기꺼이 부모와 공유함으로 인한 관계적 산물(relationship property)인 것이다(Crouter et al., 1990). 서구 문화권은 개인주의로, 우리 문화권은 집단주의로 사회적 관계를 특징지을 때(천희영, 1998), 부모와의 의사소통 채널에서 일차적으로 한 개인으로서 자녀가 존중되는 사회에서는 자녀가 자신의 경험을 알리거나 알리지 않음으로써 부모의 자녀 감독행동 또는 감독지식 형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집단주의 나라에서 자녀, 특히 본 연구의 연구대상 연령과 같은 초기 청소년기 정도까지의 자녀에게는 가족 상호의존성이 장려되고 가족집단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부모가 자녀를 자기 몸의 일부로

생각하여 관심을 갖는 자녀에게 생활정보를 질문하는 것이 자녀의 권리 침해로 인식되는 일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이에 서구 문화권에 비해서 우리 문화권에서는 상대적으로 부모 역할 수행관이 “위에서 아래로(top-down)의 특징(Magnusson & Stattin, 1998 등)을 띠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감독지식의 결정에 있어서 아동의 적극적 역할이 무시되기 때문으로 해석(Stattin & Kerr, 2000)하기 보다는 연구대상의 문화적 차이에 의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어머니의 취업여부가 자녀에 대한 감독지식 정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적지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의 해석 시 주의할 점은 어머니의 감독지식 부족이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자녀에의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일 예라고 해석함으로써 감독지식의 부족에 따른 아동의 발달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예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Crouter와 그의 동료들(1999)은 가족크기에 관계없이 어머니의 일하는 시간이 길 때는 아버지가 자녀의 경험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가지게 되므로 부와 모가 갖는 전체 감독지식 정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추후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를 연구 대상으로 포함하여 지식의 정도 차이를 비교하고, 부와 모의 감독지식 정도에 있어 보완적인 특성이 나타나는가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독립변인들로서 어머니의 감독지식에 대한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예언할 수 있도록 독립변인 집단별로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먼저 단일 독립변인군을 중심으로 그 결과를 보면, 어머니

관련 독립변인들, 아동 관련 독립변인들의 각 집단에 의한 예언변량이 감독지식 근원 관련 독립변인들에 의한 예언변량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단일 독립변인군에 의한 예언의 효율성은 감독지식 관련 변인군 즉 어머니의 질문정도나 아동의 보고정도 변인들에 의해 예언될 때 높아진다고 볼 수 있었다. 복합 독립변인군의 예언변량 역시 단일 독립변인군의 결과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감독근원 관련 변인들이 포함되는 모형들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6개의 모형을 비교했을 때 감독지식 근원 관련 변인들과 아동의 연령 변인이 포함되는 모형에 의해 예언변량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므로, 어머니의 감독지식 정도를 효과적으로 예언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변인 또는 감독지식의 정도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은 어머니의 질문 정도와 아동의 보고 정도, 그리고 자녀의 연령임을 알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변인으로 역할하는 어머니의 질문 정도는 자녀의 적응된 발달을 위해 어머니가 스스로 그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변인이라는 점에서 주목되었다. 본 연구에서 앞서 밝혀진 결과 즉 어머니의 질문 정도에 영향 미치는 변인들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어머니의 바람직한 자녀 감독을 위한 부모교육이나 정보 제공 시에 어머니의 자녀 생활에 관한 관심과 질문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자녀 감독지식에 관한 국내 연구가 미진한 상태에서 어머니의 자녀 감독지식과 지식의 근원이 아동 및 어머니 관련 변인들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자녀 감독지식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자극하고 자녀의 적응된 발달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아

동발달 과정에서의 자녀 감독지식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감독지식의 수준과 강도에 따른 아동발달에의 영향을 평가하는 연구가 추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 아버지와 어머니에 따른 감독지식의 차이 유무(Crouter et al., 1999), 가족내 차이(within-family difference) 및 개인차 변인(Crouter et al., 1999; Stattin &

Kerr, 2000), 또래관계(Kilgore et al., 2000) 등을 함께 고려하는 연구가 요청된다 하겠다. 나아가 부모의 감독과 아동발달의 관계는 양방향적으로 접근될 필요가 있으므로(Belsky et al., 1984; Stattin & Kerr, 2000), 아동의 시각이 연구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남현마 · 옥선화(2001).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친구특성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7), 37-58.
- 옥경희 · 김미해 · 천희영(2001). 저소득층 가정 자기보호 아동의 학업, 정서 및 사회성 발달: 소득수준과 보호방법에 따른 차이 비교. *성곡논총*, 32, 1-52.
- 이선경 · 이재연(1998).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요인과 보호요인의 이론적 과정모델. *아동학회지*, 19(2), 49-64.
- 천희영(1998). 권위적 부모역할 수행은 아동의 사회적 적응을 위한 최선의 양육방법인가?: 서구와 아시아 문화 및 사회적 행동에 따른 재고. *대한가정학회지*, 36(8), 21-37.
- 천희영 · 옥경희 · 김미해(2001). 저소득층 청소년 초기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감독지식 근원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3(2), 73-87.
-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 3296-3319.
- Belsky, J., Lerner, R. M., & Spanier, G. B. (1984). *The child in the family*. NY: Random House.
- Bronfenbrenner, U., & Crouter, A. C. (1983). The evolution of environmental models in developmental research. In P. Musse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pp. 357-414). NY: Wiley.
- Crouter, A. C., Helms-Erickson, H., Updegraff, K., & McHale, M. (1999). Conditions underlying parents' knowledge about children's daily lives in middle childhood: Between- and within-family comparisons. *Child Development*, 70(1), 246-259.
- Crouter, A. C., MacDermid, S. M., & Perry-Jenkins, M. (1990). Parental monitoring and perceptions of children's school performance and conduct in dual- and single-earner families. *Developmental Psychology*, 26(4), 649-657.
- Deater-Deckard, K., Dodge, K. A., Bates, J. E., & Pettit, G. S. (1996). Discipline among African and European American mothers: Links to children's externalizing behaviors. *Developmental Psychology*, 32, 1065-1072.
- Dishion, T. J., French, D. C., & Patterson, G. R. (1995). The development and ecology of antisocial behavior. In D. Cicchetti & D. J. Cohen(Eds.),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Vol. 2. Risk, disorder, and adaptation* (pp. 421-472). NY: Wiley.
- Dishion, T. J., & McMahon, R. J. (1998). Parental monitoring and the prevention of child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 A conceptual and

- empirical formulation.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1, 61-75.
- Fletcher, A. C., Darling, N., & Steinberg, L. (1995). Parental monitoring and peer influences on adolescent substance use. In J. McCord(Ed.), *Coercion and punishment in long term perspectives* (pp. 259-271). MA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ridrich, A. H., & Flannery, D. J. (1995). The effects of ethnicity and acculturation on early adolescent delinquency.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4, 69-87.
- Hoffman, L. W. (1980). The effects of maternal employment on the academic attitudes and performance of school-aged children. *School Psychology Review*, 9, 319-335.
- Kerr, M., & Stattin, H. (2000). What parents know, how they know it, and several forms of adolescents adjustment : Further support for a reinterpretation of monitor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6(3), 366-380.
- Kilgore, K., Snyder, J., & Lentz, C. (2000). The contribution of parental discipline, parental monitoring, and school risk to early-onset conduct problems in African American boys and girls. *Developmental Psychology*, 36(6), 835-845.
- Loeber, R., & Dishion, T. J. (1983). Early predictors of male delinquency : A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94, 68-99.
- Magnusson, D., & Stattin, H. (1998). Person-context interaction theories. In R. M. Lerner (Ed.), W. Damon(Series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 Vol. 1. Theoretical models of human development* (pp. 685-759). NY : Wiley.
- Patterson, G. R., & Stouthamer-Loeber, M. (1984). The correlation of family management practices and delinquency. *Child Development*, 55, 1299-1307.
- Snyder, J., & Patterson, G. (1987). Family interaction and delinquent behavior. In H. C. Quay(Ed.), *Handbook of juvenile delinquency*. NY : Wiley.
- Stattin, H., & Kerr, M. (2000). Parental monitoring : A reinterpretation. *Child Development*, 71(4), 1072 -1085.
- Steinberg, L., Elmen, J. D., & Mounts, N. S. (1989). Authoritative parenting, psychological maturity, and academic success among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0, 76-79.
- Weintraub, K. J., & Gold, M. (1991). Monitoring and delinquency. *Criminal Behavior and Mental Health*, 1, 268-281.